

News

넘치는 유동성...은행 정기예금 한달새 7.1조 ↑

뉴스스

9월 말 시중銀 정기예금 잔액 635조 돌파... 법인 중심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잔액 ↑ ... 코로나19 등 경기 불안감 커진 것도 원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기한' 이달말까지 연장

뉴스1

키코 사태 관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답변 시한을 연장... 은행은 민법상 소멸 시효 지난 사안으로 보고 배임죄에 우려...
키코 기업들에게 배상시 유사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 협의체를 통해 추가 구제될 수 있는 금액은 약 2000억 정도로 추산...

돈 안 주면 금융거래 해킹...은행에 또 '디도스 공격' 협박

한국경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랜섬 디도스' 공격이 기승... 지난 6일 주요 시중은행은 '팬시베어'라는 집단으로부터 협박성 이메일 받아...
"국내 금융사들은 수시로 국내외 해커와 관련 조직으로부터 해킹 및 디도스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낮춘 신한銀의 특별한 노하우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의 금리 기준으로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혹은 대기업군 재직 직장인을 타깃...
우량기업과 협약을 맺어 금리가 낮다는 설명... 경쟁사들은 일반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안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코로나 특수는 잠깐일 뿐...자동차보험 압박 커지는 손보사

데일리안

코로나 사태로 교통량 줄면서 잠시 반사이익누렸지만... 부채 준비금 10조 육박... 1년 새 1조 넘게 늘어... 대형 피해는 줄었지만 잦아진 사고에 부담 증폭
"교통사고 상해 양상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차보험의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

'고객 820만' 삼성생명 빅데이터 장사...보험사 '깜짝 외도' 붐

아시아경제

삼성생명이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업에 뛰어들어...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부수업무 진출 늘어나... 3분기까지 신청한 부수업무 건수가 지난해 4배 수준...
본업인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자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방안... 고령화와 저금리로 인해 보험업의 수익창출에 한계를 감지...

증권사 10곳 시스템 장애 年평균 17건

서울경제

주요 증권사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시스템 장애가 17건 발생... 관련 민원은 4천건 이상 접수... KB증권에 가장 많은 민원 접수...
"최근 시스템 장애로 하루 종일 섣달이 된 도쿄거래소의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때마다 연말 매도 '폭탄'...올해도 주식 폭락 예상

한국경제

역대 과세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 과세 기준 범위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